

2/22/15

설교 제목: 예수님이 걸어 가신 십자가의 길

(요단강 세례를 통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 3:13~17

(마 3: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 3: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절관주](#) [막 1:10](#)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2 월 18 일 지난 수요일이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이었습니다.

교회 절기 상 '사순절'에 접어 든 것입니다.

사순절(四旬節 Lent)은 수난절이라고도 하며 재의 수요일로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 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10 일을 가르키는 순이 4 번이라는 사순에서 기인해 불리게 된 명칭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난절이라는 명칭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냅니다.

부활절 날짜는 처음 교회에서 절기를 정할 때 춘분이 지나고 만월(滿月)을 맞은 후 첫 번째 주일로 정했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滿月)을 맞은 후 첫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킨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금년 부활절은 4 월 5 일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역으로 계산해서 금년 재의 수요일은 2 월 18 일이 된 것이고 그러므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2 월 18 일~4 월 4 일 기간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절기 중 중요하지 않은 절기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가장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며 남을 짓밟고라도 출세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땡땡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100년 뒤에는 자취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니깐요.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교회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통관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죽음 후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 준다고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렇게 부활한 우리 모두는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더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울며 통곡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능욕을 다 당하며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정작 당신은 외롭고도 험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 가신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걸어 가신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사건 중 특별히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30 세에 이르기까지는 특별한 기록이 없고 대부분의 기록이 30 세 이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33 세까지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라고 부르는 3 년 동안의 행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에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마침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느닷없이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거룩해 보이는 분에게 세례를 베풀다는 게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그 위엄 앞에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예사로운 분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난처해 했던 것입니다.

(마 3: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자진해서 받는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 신분을 공인 받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색은 아마 누추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외모나 차림새로 볼 때 영락없는 평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감히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물위로 올라 오셨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등장하는 '대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지금 아무도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도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세가지 증표(Signs)가 나타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들린 겁니다.

마치 왕이 즉위할 때 왕관을 씌우고, 축포를 쏘고, 빵파레를 올리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담대히 증거합니다.

(요 1:32~34)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하나님)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분으로 예감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100% 확신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증표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세례는 대속주의 사역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대속이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시는 절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죄제(贖罪祭)는 레위기 4 장, 16 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제를 드릴 때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 등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칠 때 아무렇게나 그냥 죽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로 전가(轉嫁)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전수받은 그 짐승은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곧 '대속(代贖)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치는 짐승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죄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 제물된 짐승이 안수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자신의 '흠없는 의'를 안수하는 인간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의'란 짐승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교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어 안수했을 때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겨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롬 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칭의 稱義)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4.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 앞에 고개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지만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도록 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본래부터 낮은 자들입니다.

다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을 취득함으로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흠으로 지어진 미천한 존재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십자가 대속의 위업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행 16:6~10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럽에 건너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터키)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그때 처음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날 유럽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된 겁니다.

눅 5:1~7 보면 베드로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았지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왕하 5:8~14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제 2 인자이지만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대국의 장군이 찾아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니! 그가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 하자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결국 자존심, 상식, 다 접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도 순종함으로 이뤄집니다.

우리는 요단강 세례를 통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요단강 세례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사순절 내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뒤따라 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